

# 2009년도 ISO/IEC JTC1 총회

송양희 |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과장  
 황중선 | 디지털네트워크포럼 의장  
 박정식 | TTA 표준화본부 팀장  
 오구영 | TTA 표준화본부 과장



## 1. 머리말

ISO/IEC JTC1은 ISO의 정보처리시스템 분야(TC97)와 IEC의 정보기기·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 분야(TC83 및 SC 47B)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합해 ISO와 IEC 간 정보기술(ICT) 분야의 상호 협력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기술위원회이다. 주요 임무로는 세계시장에서 정보의 획득·표현·처리·보안·전달·교환·제공·관리·저장·검색을 위한 시스템과 도구에 대한 규격·설계·개발과 관련된 기업·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는 ICT 표준을 개발·유지·촉진시키는 것 등이 있다.

이번 ISO/IEC JTC1 총회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되었으며, 세계 주요국 및 관련 기관의 표준화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했다. 한국에서는 황중선 원장(Digital Network Forum)을 대표단장(HoD)으로 15명의 정부대표 및 전문가가 참가했다.

## 2. 주요 회의 내용 및 결과

### 2.1 ISO/IEC JTC1 Plenary 회의

(1) 분산 응용플랫폼 및 서비스 SC(SC38)(Subcommittee 38 on Distributed Application Platforms and Services(DAPS)) 신설

- 웹서비스, SOA<sup>(Service Oriented Architecture)</sup>,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관련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산 응용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SC를 신설
- SC의 의장과 간사는 미국이 수임
- 산하 2개 WG(웹서비스, SOA)와 1개 SG(클라우드 컴퓨팅)를 설치
- WG과 SG의 의장으로는 미국(웹서비스 WG), 중국(SOA WG), 한국(클라우드 컴퓨팅 SG(이승윤 팀장(ETRI))가 수임
-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의장 수임에 따라 향후 관련 국제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(2) 센서네트워크 WG(Working Group 7 on Sensor Networks) 신설

- 한국이 NP를 제안·주도하고 있는 센서네트워크(SGSN)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SG에서 신규 WG의 신설을 제안해 JTC1 산하 WG7으로 신설

- JTC1의 활동범위 내에서 센서네트워크 솔루션 및 응용지향 센서네트워크에 대한 표준개발을 진행하기로 함
- WG 의장은 김용진 소장(모다정보통신), 간사는 이주란 책임(표준협회)이 수입하기로 해, ISO/IEC의 센서네트워크 관련 국제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하게 됨

(3) 그린 ICT SG(Study Group on Green ICT) 신설

- 산업체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그린 ICT와 관련해 표준화의 최근 현황을 이해하고 JTC1이 표준화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신규 SG(SG GICT)를 신설
- 시장의 표준화 요구사항과 관련 컨소시엄들과의 협의 및 JTC1에서 추진 가능한 표준화 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(단, 아래의 SG EEDC의 활동항목은 제외)
- 한국의 김용운 선임(ETRI)이 의장을 수입함으로써, 그린 ICT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(4) SG EEDC(Study Group on Energy Efficiency of Data Centers) 신설

- 산업체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에너지 효율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표준화의 최근 현황을 이해하고 JTC1이 표준화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신규 SG(SG EEDC)를 신설
- 시장의 표준화 요구사항과 관련 컨소시엄들과의 협의 및 JTC1에서 추진 가능한 표준화 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
- SG의 의장과 간사는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함

(5) SWG-Smart Grid(Special Working Group on Smart Grid) 신설

- Smart Grid 기술이 지속적이고 주된 발전과 많은 표준화 컨소시엄 등에서 Smart Grid 표준개발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, JTC1에서도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 SWG-Smart Grid를 신설하기로 함
- SWG의 의장과 간사는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함

2.2 ISO/IEC JTC 1 SWG-Directives 회의

- 한국이 제안한 P-member의 50% Voting Rule 삭제는 실패했으나 내년 6월까지 이에 대한 Letter Ballot이 진행될 예정
- Secretary의 Requirements에 Ballot Out Deadline을 추가할 것을 제안
  - 일부 SC Secretary가 Document를 받으면 2개월 이상 Letter Ballot으로 내보내지 않아 전체적으로 많은 NB들이 표준화에 지장을 초래함을 지적해 표준안의 Distribution Deadline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
- Fast Track으로 통과된 IS에 대해 Fast Track으로 Amendment 문서 제출이 불가능함
  - 중국의 WAPI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JTC1의 결정
  - 이 문제는 다음 SWG-Directives 논의하기로 결정됨
- Copyright
  - 현재 JTC1 표준의 Copyright은 JTC1 소유로 되어 있으나, PSDO Agreement에 의하면 IEEE 표준은 JTC1 과 IEEE가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PSDO Agreement에서 확정됨
  - 그래서 Directives에 이에 대한 명시를 요구했으나 시간적인 문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함

### 3. 맺음말

이번 ISO/IEC JTC1 총회에서는 한국입장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국제 의장단을 배출했다. 특히 국제적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WG(센서 네트워크) 및 SG(그린 ICT, 클라우드 컴퓨팅)에 의장단들을 배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.

이번에 의장단을 배출한 3개의 WG/SG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, 한국이 해당 분야의

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SC<sup>(Sub Committee)</sup>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TTA는 JTC1 분야의 COSD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가표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표준들에 대해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향후 적시에 국가표준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.

차기 ISO/IEC JTC 1 총회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3일 까지 영국 북아일랜드의 Belfast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2년 11월에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**TTA**



## 정보통신용어해설

### 3DTV 크로스토크

3DTV Cross Talk [기초]

3DTV의 좌우 영상이 겹쳐보이는 현상.

3DTV 시청시 좌측 눈과 우측 눈의 영상이 서로 겹쳐 보이는 현상으로 입체감을 떨어뜨리고 어지러움증을 유발해 3DTV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.

